

보도시점 2025. 9. 2.(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5. 9. 1.(월)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 원...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5% 늘려 편성

-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 등 수송분야 전동화 역점 추진
- 역대 최대규모 물관리 예산 편성(7.3조원, 14.3%↑) 등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100억원) 편성, 국가책임 실질적 이행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2025년)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하여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증액 예산의 대부분(537억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1.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 추진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구매보조금 단가유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그간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용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 (전기 승용) 15백만원('11년) ... 5백만원('23년) → 4백만원('24년) → 3백만원('25년)

**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

- 전기차 전환지원금(신규) : ('26) 1,775억 원
- 전기수소차 구매용자(신규) : ('26) 737억 원
-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신규) : ('26) 740억 원
- 전기차 안심보험(신규) : ('26) 20억 원
-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 ('25) 282억 → ('26) 493억 원, < 74.6% ↑ >

【재생에너지 활성화】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지출구조조정)”

공기의 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화석연료 기반의 저녹스보일러)을 폐지하여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한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한다.

- 난방 전기화 사업(신규) : ('26) 90억 원
-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 ('25) 160억 → ('26) 309억, < 92.6% ↑ >
-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신규) : ('26) 49억 원

【탈탄소 산업 전환】 “녹색금융 투자 규모 확대(7.7 → 8.6조원)”

융자 규모를 대폭 확대(2.6조→3.4조원)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또한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또한,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이차보전 포함) : ('25) 3,333억 → ('26) 4,253억 원, < 27.6% ↑ >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이차보전) : ('25) 540억 → ('26) 665억 원, < 23.2% ↑ >
- 녹색전환보증 : ('25) 1,400억 → ('26) 1,500억 원, < 7.1% ↑ >
-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 증권 : ('25) 195억 → ('26) 245억 원, < 25.6% ↑ >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 ('25) 456억 → ('26) 592억 원, < 29.7% ↑ >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투자지원 : ('25) 1,079억 → ('26) 1,100억 원, < 1.9% ↑ >

【탄소중립 녹색생활】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문화로 정착”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119→163개 지자체)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도 증액하여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수혜자**도 연간 133만명 수준에서 1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 2024년 예산 대비 일회용품 대체효과 기준으로 추계

** 탄소중립포인트 1인당 평균 지급액 12,000원 기준으로 추계

- 다회용기 보급 사업 : (‘25) 100억 → (‘26) 157억 원, < 57.1% ↑ >
-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 (‘25) 160억 → (‘26) 181억 원, < 13.1% ↑ >

2.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기후재난 대응 기반 확충】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 홍수예방 대책 본격 추진”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다. 먼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확대한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하여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 (‘25) 688억 → (‘26) 861억 원, < 25.2% ↑ >
- 국가하천 유지보수 : (‘25) 2,622억 → (‘26) 2,969억 원, < 13.3% ↑ >
- AI 홍수예보인프라 : (‘25) 95억 → (‘26) 215억 원, < 126.6% ↑ >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 (‘25) 3,138억 → (‘26) 3,855억 원, < 22.9% ↑ >
- 하수관로 정비(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 (‘25) 150억 → (‘26) 199억 원, < 33.0% ↑ >
-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지하방수로 설치) : (‘25) 50억 → (‘26) 109억 원, < 118.8% ↑ >

【생활 속 안전 제고】 “2026년 내 모든 하수범람 우려 지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20.7만개)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서울시 제외)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하여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신규) : ('26) 1,104억 원
- 노후 하수도 정비 : ('25) 3,471억 → ('26) 3,652억 원, < 5.2% ↑ >
- 노후 상수도 정비 : ('25) 3,991억 → ('26) 4,077억 원, < 2.2% ↑ >
- 국립공원 산불대응 : ('25) 97억 → ('26) 424억 원, < 335.4% ↑ >
- 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관리 : ('25) 32억 → ('26) 63억 원, < 99.7% ↑ >

【4대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전 강화】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공급”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그간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진행해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한다. 먹는 물 안전 강화를 위해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모니터링)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를 신규 투자한다.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13억원)하여 사업장 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 오염원 관리 등 녹조대책 이행 : ('25) 1,703억 → ('26) 2,037억 원, < 19.6% ↑ >
- 조류경보신속대응체계(신규) : ('26) 5억 원
- 취양수시설 개선 : ('26) 380억 원
-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신규) : ('26) 11억 원
-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신규) : ('26) 40억 원

3.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환경민감계층 지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적극 이행”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22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출연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출연이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 ('26) 100억 원

【자연과의 공존 확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인프라)를 새로 조성하고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도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줄인다. 지역·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하여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시기별 철새 서식지 및 종에 따른 생태 특성을 연구하여 항공안전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17→57억원)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신규) : ('26) 35억 원
- 러브버그 등 곤충대발생 대응체계 강화 : ('25) 2억 → ('26) 5억 원, < 150.0% ↑ >
- 생태축 연결성 확보 : ('25) 196억 → ('26) 413억 원, < 110.7% ↑ >
-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신규) : ('26) 22억 원
- 국토환경 녹색복원 : ('25) 34억 → ('26) 98억 원, < 191.5% ↑ >

【국가 균형성장】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정책 적극 지원”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2026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이관과 동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7억 원, 1조 2,686억 원으로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도 신규 투자한다. 그간 개별 사업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하여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 ('25) 9,480억 → ('26) 11,167억 원, < 17.8% ↑ >
- 하수처리장 설치(면단위 포함) : ('25) 9,255억 → ('26) 12,686억 원, < 37.1% ↑ >
- 팔공산 국립공원 : ('25) 49억 → ('26) 160억 원, < 228.2% ↑ >
- 물순환 촉진 지원(신규) : ('26) 16억 원
-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 ('25) 142억 → ('26) 193억 원, < 36.0% ↑ >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6년 환경부 예산안 개요.
2. 2026년 환경부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3. 인포그래픽(국민이 직접 누리는 환경서비스).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장	마재정 (044-201-6330)
		담당자	서기관	김무연 (044-201-6337)
		담당자	주무관	김희영 (044-201-6342)
<환경 R&D>	녹색기술개발과	책임자	과장	권병철 (044-201-6660)
		담당자	사무관	변우하 (044-201-6667)
<전기차>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강찬 (044-201-6382)
<사용후 배터리>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책임자	부단장	배정한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남궁현 (044-201-7484)
<난방 전기화>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장	양한나 (044-201-6860)
		담당자	서기관	이나영 (044-201-6861)
<햇빛연금, 녹조관리>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장	배연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신의찬 (044-201-7013)
		담당자	사무관	김민중 (044-201-7018)
<녹색금융>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영민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6690)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장	윤태근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정진성 (044-201-6706)
<탄소중립 설비투자>	기후경제과	책임자	과장	김마루 (044-201-6580)
		담당자	사무관	안치용 (044-201-6595)
<탄소중립 포인트>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장	박정철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이현민 (044-201-6953)
<국가하천 정비>	하천계획과	책임자	과장	신태상 (044-201-7701)
		담당자	사무관	박찬홍 (044-201-7703)
<하수도>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장	서해엽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박상동 (044-201-7036)
<국립공원, 숲결혼식>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장	정호경 (044-201-7316)
		담당자	서기관	김현주 (044-201-7325)
		담당자	사무관	유영란 (044-201-7311)
<취양수장 개선>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사무관	정성진 (044-201-7618)
<과불화화합물, 광역상수도, 노후상수도 정비>	수도기획과	책임자	과장	이승현 (044-201-7110)
		담당자	서기관	강경록 (044-201-7126)
		담당자	사무관	이종석 (044-201-7118)
		담당자	사무관	최신우 (044-201-7112)
<생태축>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장	문제원 (044-201-7220)
		담당자	서기관	김준호 (044-201-7224)
<가습기 살균제>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장	손삼기 (044-201-6810)
		담당자	서기관	신행수 (044-201-6742)

붙임 1

2026년 환경부 예산안 개요

□ **(총지출) 15조 9,160억원**(전년 대비 +7.5%)

○ **(예산) 14조 1,154억원**(전년 대비 +8.7%)

(단위 : 억원, %)

구 분	'25년		'26년 정부안(B)	증 감	
	본예산(A)	2회 추경		(B-A)	%
합 계	129,839	129,956	141,154	11,314	+8.7
기후·탄소	45,176	40,994	46,017	+841	+1.9
물관리	63,976	66,020	73,135	+9,159	+14.3
자연환경	7,813	8,319	8,683	+869	+11.1
자원순환	3,173	3,802	3,472	+229	+9.4
환경보건·화학	2,917	2,917	2,960	+43	+1.5
국제협력	1,161	1,161	1,127	△34	△2.9
환경일반 등	5,623	6,743	5,760	+137	+2.4

○ **(기금) 1조 8,006억원**(전년 대비 △0.9%)

(단위 : 억원, %)

구 분	'25년		'26년 정부안(B)	증 감	
	본예산(A)	2회 추경		(B-A)	%
합 계	18,168	18,168	18,006	△162	△0.9
한강수계관리기금	4,872	4,872	4,526	△346	△7.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48	2,248	2,139	△107	△4.8
금강수계관리기금	1,223	1,223	1,167	△56	△4.6
영 산 강 섬 진 강 수 계 관 리 기 금	901	901	909	+6	+0.7
석면피해구제기금	481	481	479	△2	△0.4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8,443	8,443	8,786	+343	+4.1



2026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I.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 추진 (5.5조원, +2.9%)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 전기차전환지원금 신규	1,775억원
· 전기·수소차구매융자 신규	737억원
· 전기·수소차인프라펀드 신규	740억원
· 전기차안심보험 신규	20억원
· 사용 후배터리순환이용 (+74.6%↑)	493억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 난방 전기화(열히트펌프) 신규	90억원
·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 (+92.6%↑)	309억원
·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신규	49억원

탈탄소 산업 전환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7.6%↑)	4,253억원
· 녹색정책금융활성화(0차보전) (+23.2%↑)	665억원
· 녹색전환보증 (+7.1%↑)	1,500억원
· 녹색채권·유동화증권 (+25.6%↑)	245억원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29.7%↑)	592억원
· 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할당업체) (+1.9%↑)	1,100억원

탄소중립 녹색생활

· 다화용기 보급 (+57.1%↑)	157억원
·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13.1%↑)	181억원

II.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5.8조원, +7.6%)

기후재난 대응 기반 확충

·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25.2%↑)	861억원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대응) (+22.9%↑)	3,855억원
· 국가하천유지보수 (+13.3%↑)	2,969억원	· 하수관로 정비(대심도빗물터널) (+33.0%↑)	199억원
· 시흥수예보 인프라 (+126.6%↑)	215억원	·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지하방수로) (+118.8%↑)	109억원

생활 속 안전 제고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신규	1,104억원
· 노후 하수도 정비(싱크홀) (+5.2%↑)	3,652억원
· 노후 상수도 정비(싱크홀) (+2.2%↑)	4,077억원
· 국립공원산불대응 (+335.4%↑)	424억원
· 국립공원재난취약지구 관리 (+99.7%↑)	63억원

4대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전 강화

· 오염원 관리등 녹조대책 이행 (+19.6%↑)	2,037억원
· 조류경보 신속대응체계 신규	5억원
· 취양수시설 개선	380억원
·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 신규	11억원
·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 신규	40억원

III. 사람·자연·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4.0조원, +15.5%)

환경 민감계층 지원

· 가슴기살균제 정부출연금	100억원
----------------	-------

국가 균형성장

· 하수관로 정비(산설분류식화) (+17.8%↑)	1조 1,167억원
· 하수처리장 설치 (+37.1%↑)	1조 2,686억원
· 팔공산국립공원 (+228.2%↑)	160억원
· 지역주도의 물순환 촉진 지원 신규	16억원

자연과의 공존

· 국립공원숲속결혼식 신규	35억원
· 러브버그 등 곤충대발생 대응체계 강화 (+150%↑)	5억원
· 생태축 연결성 확보 (+110.7%↑)	413억원
·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신규	22억원
· 국토환경녹색복원 (+191.5%↑)	98억원



2026년 예산안 국민이 직접 누리는 환경서비스

I. 국민 혜택 탈탄소 정책

신규

전기차 전환지원금

300만원 + 100만원



탄소중립 포인트

133만명 → 151만명
160억원 181억원



*1인당평균자금액1.2만원기준

신규

난방 전기화 지원

1,607가구 × 560만원



II. 국민 체감 사회안전매트

신규

맨홀 추락방지시설

침수우려 **소지역** 맨홀



+20.7만개소
1,104억원

신규

국립공원 산불감지

22개 **소국립공원**
IoT 산불조기감지



국가하천 지능형 CCTV

국가하천 **소구간**
집중호우시 **사람·차량자동감지**



III. 함께하는 사람·자연·지역 공존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정부출연금 **100억원**



곤충대발생 대응체계

원인규명 + **친환경** 관리방안



신규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3개소 조성·운영

